

대상그룹, 여장부 경영시대 도래

임창욱 명예회장 부인 박현주 부회장 9월13일 등기이사로 선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부인 박현주 상암커뮤니케이션즈 부회장이 그룹 지주회사인 대상홀딩스 등기이사로 선임돼 그룹 경영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박현주 부회장이 임창욱 명예회장의 뜻을 받들어 그룹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그룹 관계자는 9월7일 “대상홀딩스가 9월13일 주주총회를 열어 박현주 부회장과 김학태 대상 품질경영 실장, 주홍 홍보실장 등 3명을 등기이사로, 다른 학계 인사 1명을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그동안 임창욱 명예회장과 사외이사 1명을 합쳐 이사진이 3명밖에 안돼 사실상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현주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배경에 대해 “대주주인 임창욱 명예회장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상그룹 계열 광고회사 상암커뮤니케이션즈를 맡아온 박현주 부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막내딸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여동생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장모이다.

<화학저널 2005/09/09>